

이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결혼경험 및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arriage Experience and Sexual Relationship of Divorc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고미숙

선문대학교 통합의학과 가족상담

Me-Suk Ko(me2995@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에 따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로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해체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5년~12년의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지 2년 미만인 6명의 베트남여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과학적 현상학에 따라야 하는 6가지의 구체적 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구성된 의미 203개에서 74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23개의 주제군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7개의 범주인 결혼 전 베트남에서의 생활, 결혼하게 된 동기, 결혼한 방법 및 과정, 결혼생활의 좋았던 경험, 결혼생활에서 힘들었던 경험, 이혼하게 된 원인, 이혼 후의 변화된 생활로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결혼생활에서 성관계가 주요갈등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부부의 성문제가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문화 가족 해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이혼 | 가족해체 | 현상학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sults of in-depth analysis of family disintegration experience as a qualitative study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experiences of marriage and divorce of women who have divorced in Vietnam.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as six Vietnamese women who had been divorced for less than two years after five to 12 years of marriage. The collection of data and the analysis of the data were done by six concrete steps that should be followed in the scientific phenomenology suggested by Colaizzi(1978) Through this study, 74 subjects from 203 semantic meanings were derived and identified as 23 subject groups and finally organized into 7 categories. The seven categories were presented as life in Vietnam before marriage, motive of getting married, method and process of marriage, good experience of marriage, difficult experience in marriage, cause of divorce, changed life after divor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exual relationship is a major conflict factor in marriage, and that this problem can lead to divorc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find a solution for the dissolu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 keyword : | Married Immigrant Women | Divorce | Family Dismantling | Phenomenology |

I.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화의 추세로 우리 사회도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규모 또한 급증하였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가 다문화 이주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1]. 통계청 발표(2017년 11월 기준)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주민은 1,861,084명으로, 2016년 1,764,664명에 비해 96,420명(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다문화 가구가 278,036 가구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 되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04,516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3][4].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급격한 증가는 긍정적 효과 이면의 부정적 문제도 초래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및 억압과 언어부족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가족갈등 및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게 되었으며[5][6], 이로 인해 2000년 중반 이후 다문화 가족 이혼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너무나 다른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한계, 국제결혼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가족해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7][8].

가족해체 자체는 사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가정이 해체 되어도 서로 잦은 왕래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경우는 이혼 가정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가족해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거와 사망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제외하고 이혼한 경우에 대해서만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해체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양적연구이기에 이들의 결혼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9].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혼을 경험한 이주여성들의 이혼과정이나 이혼한 후의 삶에 대한 의미 분석, 그리고 이혼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방안 제시 등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10]. 하지만 이혼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해체는 개인 및 가족마다의 입장과 해석이 다르다는 관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11]. 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출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비자와 국적 체류와 관련된 사항이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언어와 문화차이,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음주와 폭행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일반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4][10-13]. 여기에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언어와 생활방식, 가치관 등에서 오는 특수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10][13].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이혼 및 별거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성격차이(45.3%)와 애정문제(10.0%)로 나타났다[4][10].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인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혼생활은 다문화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원초적이며 극히 단순하고 작은 의문점에 의해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6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부부 중 전체 이혼 건수는 5,6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베트남이 1,570건(28%)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필리핀(5.3%) 순으로 해마다 베트남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였다[2][4]. 이는 연구자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혼 경험을 심층적으로 질적 탐색을 하고자 한다. 특히,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충청남도 내에서 결혼생활을 경험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혼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내용과 결과는 다문화 부부 상담 및 가족해체를 예방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다문화 가구란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 한 사람이거나 귀화자를 포함한 외국인인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이르는 말이다[14].

다문화 가족의 가족해체와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족의 이혼 실태 및 직접적인 이혼 요인에 관한 분석위주로 수행되었으며, 남편의 학대나 폭력, 음주와 도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였으며, 그 외 '불안정한 초기 결혼성립',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학대 및 폭력' 등이 제시되어 왔다[14-17]. 이혼 사례 또는 의향을 살펴보면 부부간 연령차가 클수록 그리고 한국어에 능숙한 이민자일수록 더 높은 이혼 경험 및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해체 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 과정을 '불안정한 초기 결혼생활 성립',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폭력' 등 결혼생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혼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이혼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가족 내의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18][19].

이러한 다문화 가족 해체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부부의 이혼이 곧 가족 해체가 되는 것으로 인식 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혼의 원인 규명을 통해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혼을 경험한 이주여성들이 이혼 과정에서 혹은 이혼한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혼과정 또는 이혼 후 삶에 대해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나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2016년에 발표된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59%), 부부 다툼으로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귀화자인 배우자와 다툼 경험(65%), 성격차이(35%),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19%), 자녀 교육 및 행동 문제(16%) 등이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해체의 주된 이유이자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화차이, 성격차

이 등으로 인해 결혼 5년이 지난 부부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성'에 대한 부분이 선행연구에서는 언급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부간의 연령차이로 인한 갈등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출발점을 달리 해야 한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과 사회적 소외감과 차별 그리고 남성배우자의 존재감의 부재 등 여러 각도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부부의 성'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III. 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질적 연구는 자연적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 방법으로 실제 현상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풍부한 자료수집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20-22].

현상학(phenomenology)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증진으로 명상적인 사고를 기초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20-22].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방법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기술을 반복해서 읽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에 있는 함축적인 메시지 및 명백한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2].

또한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면담 내용으로부터 경험의 의미를 서술하는 것이다[21]. 현상학은 사실을 파헤치는 사실학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학이다. 현상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사실 세계에서부터 그 본질의 세계로 옮겨 가야 한다. 이것은 '현상적 환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본질이란 그것 없이는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아니고는 다른 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필연적 일반적 형식, 다시 말해 그것 없

이는 이런 종류의 대상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현상학은 본질학이기에 본질의 파악은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진솔한 맥락 속에 들어있는 사실적인 본질에 대한 구조와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Colaizzi[13]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 개인 경험의 속성보다는 연구 참여자 전체의 경험에 관한 속성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론개발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므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해 온 여성의 가족해체 경험의 본질을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성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참여자 D	참여자 E	참여자 F
혼인방법	중개업	연애	중개업	중개업	중개업	중개업
본인출생	1987	1989	1991	1988	1984	1987
최종학력	초졸	대졸	중졸	중졸	중졸	초졸
남편생년	1968	1969	1968	1971	1974	1967
남편직업	회사원	건설업	회사원	택배	상업	농업
남편학력	대졸	대졸	고졸	고졸	중졸	고졸
연 령 차	19세	20세	23세	17세	10세	20세
입국년도	2008	2011	2011	2008	2008	2009
혼인기간	10년	5년	5년	10년	10년	9년
자 녀 수	2명	없음	없음	2명	1명	1명
해체기간	1년 별거	이혼	이혼	6개월 별거	1년 별거	행방 불명
해체사유	정서 불만족	정서 불만족	외도	욕실	지적 장애	남편 기출
해체방법	합의	합의	재판	합의	합의	재판
본인건강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남편건강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장애	양호
한국국적	취득	취득	F-5	취득	취득	F-5
한국생활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
현 재 삶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만족	만족
현재상황	동거중		동거중		결혼	
한국생활	중상층	중간층	중상층	중상층	중간층	최하층
모국생활	중하층	중하층	최하층	중간층	중간층	최하층
거 주 지	부산	인천	태안	충주	안양	태안

연구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자가 2016년에 본 연구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진행했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연구 대상자로 적합한 베트남 이주여성 25명(해체 가정 20명, 해체 위기 5명)을 선정한 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총 9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자가 오랜 동안 지내온 충청남도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어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4].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상 그대로 표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연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적 표집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원하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후 이혼한 이주민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신의 심리적 경험을 언어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연구자와 충분한 라포 형성이 가능하고 스스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베트남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온 6명의 가족해체 경험을 한 여성으로 참여자들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베트남 여성으로 현재, 한국남성과 이혼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거나 재혼 예정, 또는 연애 중인 경우도 있었다.

3. 자료 수집

1)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비밀보장이 유지된다는 것과 동시에 연구과정과 연구목적 등에 대한 집단 상담 내용을 연구와 교육의 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였다.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윤리적 문제는 연구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에 연구 참여자의 보호와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성을 깊게 고민하였으며, 오랫동안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였기에 결혼이민자 여

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모두가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풍부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또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을 갖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게 된 만큼 사회적 책임과 연구 대상자 보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조심히 접근하였다.

본 연구자는 윤리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공식적인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확보하여 연구자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자 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을 선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면담 및 녹음, 연구노트 기록, 참여관찰, 연구 절차, 면담내용 및 면담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 연구의 자발성 등이 설명되어 있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개의 글'을 배부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과 메모를 통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필사한 개인정보는 연구에만 사용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으며, 면담내용은 학술지나 학술 발표에 이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필사한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노트북에 따로 저장하여 보관하였으며, 번호로 표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 중에 알게 된 사적인 내용은 연구자 이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비밀유지를 할 것이며,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료나 관계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고 참여자에게 약속하였다. 또한 자료수집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참여자를 번호로 구분하여 익명으로 표시하였다. 참여자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자 메일과 휴대전화로 문의가 가능하고, 지도교수와 휴대전화로 소통이 가능함을 알렸다. 개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원하면 연구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권리가 보호됨을 알렸다.

2) 자료 수집 및 기간

자료 수집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에 따라 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는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 하여 내용을 녹음한 후, 그 내용을 필사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를 분석하므로, 자료를 수집 하면서 녹음내용을 반복해서 들었다[23].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주로 관찰, 면담(또는 면접) 그리고 문서 또는 기록의 고찰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본격적인 주된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비구조화 된 질문을 통한 일대일로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당 1~3회였고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소요 되었으며 면담시간과 장소는 참여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면담 장소는 주로 센터 내 상담실과 참여자의 집이었고, 카페나 야외에서 진행 했던 경우도 있었으며, 추가적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뷰로 보완하였다.

1차면담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들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경험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2차면담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였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한 참여자 또는 2차면담 이후 더 풍부한 경험 내용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인 경우,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였다. 질문을 한 후 더욱 구체적인 참여자들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를 기본으로 구체적으로 변형하여 면접질문을 하였으며 몰입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여 추가 질문을 제시하였다. 면접 진행 시 연구자는 참여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공감과 수용과 적절한 몸짓을 하여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특별한 행동과 태도도 관찰하였고, 2차면담에서는 1차면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전 면담에서 각 참여자 별로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였다. 연구자는 면접 질문 후, 필요 시 후속 질문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 분석방법으로 사회 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Colaizzi(1978)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이 제시하는 분석절차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료 분석의 절차에 따라 진행 하였다[21][24].

첫째, 연구자는 먼저 면담 질문에 대한 진술한 것을 필사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 할 수 있을 때까지 녹음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정해제 경험에 대해 진술한 것을 기록한 진술내용에 대한 기술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전화로 질문하거나 만나기도 하고 다시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가정해제 경험을 표현한 진술에서 의미 기술의 단위를 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로 표현된 의미단위의 주제를 규명하였다. 셋째, 의미단위 주제에 따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도록 하였다. 넷째, 의미의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었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화하였다. 여섯째,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최종적으로 명확한 진술로 기술하였다. 이에 이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경험을 범주화할 수 있었다.

IV. 연구 결과

[표 2]는 이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결혼 경험을 주제별로 범주화한 결과이다.

표 2. 이혼한 베트남이주여성의 결혼 경험

주제	주제모음	범주
① 베트남에서 어려웠던 결혼	1) 가족에 대한 책임감	1. 결혼 전 베트남의 생활
②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원망		
③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만 됨		
④ 가난한 가정 환경	2)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	
⑤ 쫓돌리다 못해 비참한 생활		
⑥ 꿈 많았던 젊은시절	3) 따뜻한 고국 생활	2. 결혼하게 된 동기
⑦ 행복했던 고국의 추억		
⑧ 결혼하려는 간절한 마음		
⑨ 이방인에 대한 동경	4) 결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⑩ 국제결혼하게 만드는 상황	5) 국제결혼으로 가족에서 벗어남	3. 결혼한 방법 및 과정
⑪ 국제결혼이 주는 의미		
⑫ 가족에게 도움이 됨		
⑬ 소개비용으로 정형화 된 결혼	6) 국제 결혼에 대한 무지함	
⑭ 국제결혼의 힘듦에 대한 무지함		
⑮ 꿈에 부푼 연애결혼	7) 국제결혼 선택함에 대한 희망	4. 결혼생활의 좋았던 경험
⑯ 선택한 결혼에 대한 희망	8)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	
⑰ 편안하고 행복한결혼생활		
⑱ 여유롭고 잘 살았던 생활		
⑲ 시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받음	9) 남편과 시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⑳ 남편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	10) 한국생활의 고마움	5. 결혼생활에서 힘들었던 경험
㉑ 남편과 단란하고 행복함		
㉒ 친정집에 도움을 준 고마움		
㉓ 한국생활에 잘 적응함		
㉔ 마음을 몰라주어 섭섭함	11) 문화 정서적 차이	
㉕ 성격과 나이차이가 심한 남편	12) 스트레스가 된 결혼생활	6. 이혼하게 된 원인
㉖ 소통이 안 되는 남편		
㉗ 결혼생활의 스트레스		
㉘ 임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	13) 남편사랑에 대한 갈증	
㉙ 경제의 필요성 느낌		
㉚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함	14) 신뢰와 배려 없는 남편	
㉛ 섹스를 피하는 남편		
㉜ 사랑을 원해도 주지 않은 남편	15) 남편에 대한 분노	
㉝ 사랑이 식은 남편에 대한 원망		
㉞ 차갑게 대하는 남편	16)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함	7. 이혼 후의 변화된 생활
㉟ 책임감 없는 남편에 대한 미움		
㊱ 폭력을 자주 쓰는 남편	17) 이혼에 대한 생각	
㊲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남편		
㊳ 유흥업 종사자 취급하는 남편	18) 경제적 독립	
㊴ 잠자리도 하지 않는 남편		
㊵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분노	19) 가족관계 소원해짐	
㊶ 자신을 무시한 남편에 불평		
㊷ 여자로서 사랑받고자 함	20) 행복한 삶, 억압된 성에서 풀려남	7. 이혼 후의 변화된 생활
㊸ 이혼을 걸기로 드러낸 남편		
㊹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함	21)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	
㊺ 소통이 안되고 폭력적인 남편		
㊻ 화만 내는 무서운 남편	22) 이별로 오는 책임감과 절망감	
㊼ 남편의 버림 정신병으로 고통		
㊽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함	22) 이별로 오는 책임감과 절망감	
㊾ 못 다한 공부에 대한 미련		
㊿ 가족과 멀어짐		
① 주변 다른 환경의 변화		
② 자녀양육과 자신의 심리변화		
③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④ 이혼으로 편해진 생활		
⑤ 직장생활로 여유가 생김		
⑥ 노력했지만 살고 싶지 않은 남편		
⑦ 여자로서 사랑받는		
⑧ 자국남자와 사랑 나눔		
⑨ 자녀에 대한 그리움		
⑩ 행복했던 결혼생활이 그리움		
⑪ 이별의 아쉬움과 미안함		
⑫ 이별 뒤의 남편 속마음 알게 됨		
⑬ 이혼의 고통과 후회		
⑭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원망		
⑮ 갈 곳이 없어 힘들어짐		
⑯ 이혼의 씁쓸함과 분노		
⑰ 새로운 생활을 위한 노력		

68	버려짐에 대한 절망감	23) 이별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
69	늘어난 책임감과 걱정스러움	
70	자녀양육의 어려운점 생김	
71	자녀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걱정	
72	이혼의 깊은 상처로 고통스러움	
73	결혼실패로 불안 두려움이 생김	
74	남편없는 서러움과 외로움	

1. 구성된 의미의 진술

이혼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결혼 경험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과 함께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리고 구성 요소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경험의 구조를 제시하고 구성 요소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시간적 맥락 속에서 경험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면담 질문에 대한 진술한 것을 필사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토대로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환경 및 결혼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진술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표현된 의미단위의 주제를 규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별로 '상황적 의미의 구조'로 정리한 후에 전체 대상자들로부터 나온 의미단위들 중에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을 묶어서 203개의 구성된 의미요약을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연구자는 도출된 의미요약들을 포함하는 74개의 주제를 묶은 후 다시 23개의 주제군으로 추출하여 본질적 구성요소들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구성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찾기 위해 '자유 변경법'을 사용하여, 결론적으로 해체가 진행되는 시간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시기에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는데 있어 동질적이라 판단되는 구성요소들을 묶어 최종적으로 7개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1) 결혼 전 베트남에서의 생활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전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가정폭력이 난무한 가정환경이 대부분인 것으로 인터뷰 과정에서 파악되었다.

베트남의 가족관계는 정서적으로 매우 밀착되어 있

으며 역할과 지위는 성과 나이에 따라 계층과 서열이 결정되고 부부 중심적이기보다는 부모 중심적이고 가정의 지위는 확고하며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가족의 이익을 위해 자기희생을 하고 가족을 통해 심리·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간에 협조와 조화를 중요시한다. 송출국의 가부장제는 여성의 이주동기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주노동을 선택하게 하고 이들의 송금이 송출국가의 외환보유고에 기여가 되고 있어 송출국은 여성들의 해외 이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주와 가부장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

어려운 살림으로 인해 병들어 있는 부모의 병원비와 돈 벌 사람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거나 매일 싸우는 부모와 돈벌이를 해도 나아지지 않은 살림과 이로 인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구성된 의미의 진술을 통해 7개의 구성요소를 (1) 가족에 대한 책임감, (2)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 (3) 따뜻한 고국 생활 등 3가지 주제군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엄마가 맨날 아파서 울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갔어요. (참여자 A)

저는 일만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11살 때부터 일했어요. (참여자 F)

2) 결혼하게 된 동기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와 한류 열풍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중 연애결혼을 한 참여자 B를 제외한 거의 모든 참여자는 결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방인에 대한 동경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주위의 언니들이 부러움,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잘살게 될 것이고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려면 중개업자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그만한 돈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은 차입을 해서 소개비를 지불했으며, 그 소개비는 한국에 가서 갚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많은 오해로 힘들어했다.

이러한 결혼 동기를 구성된 의미의 진술을 통해 5개

의 구성요소를 (1) 결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2) 국제 결혼으로 가족에서 벗어나 2가지로 주제군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신발공장을 다녀서 돈을 벌어도 엄마가 맨날 아파서 울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갔어요.(참여자A)

아기 가지면 우리 베트남에 돈도 보내고, 집도 지어 줄 거라고 했는데~(참여자 C)

쉬운 방법이 결혼하면 되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참여자 D)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 부모님과 동생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참여자 E)

3) 결혼한 방법 및 과정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어진 바에 의하면 6명 중 5명의 참여자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을 하였다. 대체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였고 그로 인한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해야했던 것이다.

결혼하여 이주해 오는 외국 여성의 경우, 여러 가지 동기과 기대로 인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실제로 특별한 직업이나 기술이 없는 여성에게 국제결혼은 노동 이주보다 훨씬 쉽게 이주해 올 수 있는 이주 방식이다.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 보장과 취업의 기회까지 폭넓게 주어진다는 장점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의 아내로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주하는 초기부터 시작되는 언어와 문화 차이, 의사소통에서 오는 어려움, 경제적인 기대감에 오는 상실감, 자녀출산에서 오는 양육 문제, 소통의 부재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 사회의 편견에서 오는 차별 등 사회-문화적 환경 적응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국제결혼은 좀 더 좋은 삶과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욕구와 독신에서 탈피하고 싶어 하는 한국인 남성들의 욕구가 부합

되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한 방법 및 과정을 구성된 의미 진술을 통해 4개의 구성요소 (1)국제결혼에 대한 무지함, (2)국제결혼 선택함에 대한 희망 2가지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결혼 중매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났어요.

내가 올 때는 많았어요.

사람들이 동네마다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다녔으니까요. (참여자 A)

결혼중매업소를 통해 남편을 만났어요.(참여자 E)

4) 결혼생활의 좋았던 경험

한국의 가족주의는 한국적 집단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자 관계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에서의 가족주의와 대조를 이룬다. 한국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은 각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며 가문에 소속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 이러한 이유로 늦게 결혼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며느리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하는 시부모도 있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생활의 좋았던 경험으로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연구자는 이러한 구성된 의미의 진술을 통해 7개의 구성요소를 (1)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 (2) 남편과 시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3) 한국 생활의 고마움 등 3가지 주제군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베트남 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가 있었고,

남편이 공부 할 수 있게 해주어,

아주 행복했어요. (참여자 B)

베트남 엄마 아빠가

잘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참여자 D)

5) 결혼생활에서 힘들었던 경험

결혼해체는 결혼 당시의 개인적, 부부관계 요인뿐만 아니라, 결혼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적, 부부관계요인의 변화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사회인구적 특성, 상호의

존성, 부부간 불일치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21].

다문화 가정의 해체는 부부관계적인 영역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 차이, 성적인 문제 또는 성적 부조화, 신체적 학대와 폭력, 사랑 결핍, 부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나타나고 있다[16].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과정 중에서 파악된 내용으로는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 섭섭함과 남편의 폭력 등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다. 특히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 중 부부간의 '성'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나라로 여성들의 표현능력에 비해 배우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결혼생활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구성된 의미의 진술을 통해 19개의 구성요소 (1) 문화-정서적 차이, (2) 스트레스가 된 결혼생활, (3) 남편 사랑에 대한 갈등, (4) 신뢰와 배려 없는 남편 등 4가지 주제군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그때는 서로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맨날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B)

저는요. 남편이랑 노래방도 가고 싶고,
술도 먹고 싶었어요. 늘 똑딱거리는 거 말고,
술주정도 좀 하고. (참여자 A)

나는 섹스하고 싶은데,
남편은 싫어해요. 귀찮대요. (참여자 C)

6) 이혼하게 된 원인

부부갈등은 배우자와의 성격으로 인한 차이, 경제적 문제, 음주, 폭행 등이 주요 요인이지만 이는 일반 부부갈등과 흡사하다. 그러나 정서-문화적 차이에 의한 부부갈등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관계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25]. 베트남은 성별에 따른 활동이나 역할에 제약이 없고 유연한 일-가정 노동을 위한 성역할 분리구조를 보이고 있다[26].

베트남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종속적이지 않고 남녀가 동등하다. 여성들은 '성'에 대하여 매우 솔직하

며, 여성의 성에 대한 솔직함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 베트남의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 남편과 섹스를 원 할 때는 여성이 먼저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장장적인 한국 남편은 이러한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사랑의 행위를 할 때도 본인의 욕구만을 생각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베트남의 여성들은 여자와 남자들이 동등한 위치로 인해 부부간 사랑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접근이 필요한데 남편은 본인이 주도하려 하고 참여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여 부부간의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터뷰 과정 중에 알게 되었다.

이혼하게 된 원인을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보편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마음이 변한 남편의 폭력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답답함, 신뢰감 저하, 경제적 독립 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원인을 구성된 의미의 진술을 통해 13개의 구성요소를 (1) 남편에 대한 분노, (2)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자 함, (3) 이혼에 대한 생각, (4) 경제적 독립, (5)가족관계 소원해짐 등 5가지의 주제군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내가 섹스를 원하면 남편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몸 파는 여자냐고 물었던 적도 있어요.
화가 나요. (참여자 A)

내가 포옹하고 만지려 하면
술집 여자냐고 화를 냈어요. (참여자 B)

나는 남편이 키스해 주고 가슴 만져 주고
잠잘 때 품속에 넣어서 같이 자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오빠는 잠옷 입고 자는데 내가 남편 께시려고
이쁜 팬티 브라만 입고 누우면
잠옷 입으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C)

밤에 남편의 부드러운 손을 나는 원했지만
 처음 결혼하고 어느 정도까지였기에
 그 뒤로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서로를 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남편은 정말로 나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참여자 D)

나는 아기가 갖고 싶은데 남편이 싫데요.
 처음 베트남에서 오고 1년은 안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깐 나를 만지지도 않고,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도 뒤돌아
 눕고 그랬어요. (참여자 C)

처음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변한 거 같아요.
 남편은 늙어서 나는 더 외모도 예뻐지고
 왕성해졌으며 생각도 달랐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7) 이혼 후의 변화된 생활

모계 사회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대부분의 동남아 이주여성들의 가족부양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국제 결혼의 성공적인 모습을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보이려는 의지는 이혼 후 이들의 삶을 더 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는 결혼해체 이후 정체성 확립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헤쳐 나가는 이주여성들의 능동적인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혼 전 남편의 부양능력의 한계와 결혼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여자로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와 자국남자와의 사랑받는 삶에 대한 욕구 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고, 이혼 후에는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오히려 자녀양육 및 경제적 적응능력을 연마하려는 강한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부모님에게 그리고 착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이혼 후의 변화된 생활에 대한 인터뷰 과정 중에 나타난 경험을 구성된 의미의 진술을 통해 22개의 구성요소를 (1) 행복한 삶, 억압된 성에서 풀려남, (2)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 (3) 이별로 오는 책임감과 절망감, (4)이혼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 등 4가지로 주제군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난 남편이 필요하고 날 감싸주고 내 아이를 사랑해 주는

아빠가 필요하거든요. (참여자 B)

계속 살았어도 안 행복했을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살지. 편하고 좋아요. (참여자 C)

친구들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발에 나가 일도 했어요. (참여자 D)

나도 여자더라고요.
 나도 그런 걸 절실히 원하는 여자더라고요. (참여자 E)

말 안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참여자 F)

2. 연구의 해석

1) 결혼동기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잘 살 것이고 임신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로 한국남성과 결혼을 간절히 원하였다. 이러한 간절함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이라기보다는 결핍된 삶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부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갈등을 처리하는 연속된 과정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기대에 대한 충족을 원하는 이상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동기에는 한국에서 잘 살고 싶은 경제적 부의 갈망이 또한 작용하였다. 결혼이주 배경에 경제적 신분상승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그들의 엄마가 한국으로 결혼시키고자 하는 기저에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며 결혼을 강행한 것이다.

2) 결혼경험

참여자들의 시어머니들도 그들의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애정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의 허니문은 장기화되지 않듯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또한 장기적인 허니문이 허락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에게는 결혼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 수행 중에 부부가 갈등의 방향으로 치닫는 경험을 하였

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혼 경험에서 문화적 차이와 정서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결국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의 폭이 깊었는데 이는 사랑받지 못함의 비참함, 섹스에 적극적이지 않는 남편, 사랑을 원해도 주지 않는 남편, 사랑이 식은 남편에 대한 원망, 차가운 남편으로 진술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갈등에는 성적인 갈등이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욱 진술하게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종종 보고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언어가 소통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성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편의 무관심이 더욱 부부갈등을 증폭시켰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부부의 '성' 생활에 대한 갈등은 한국 남성이 인식하는 '성'에 대한 관점 또한 갈등촉발의 소지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참여자들에게는 남편의 폭력, 무책임, 무관심과 더불어 애정교환이 불가능한 정서적 고립감으로 인해 더욱 결혼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이론의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3) 이혼경험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인 참여자들은 한국 남성과의 이혼 이후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참여자들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억압된 '성'에서 해방되는 만족을 경험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도구적 목적에 의한 쉬운 결혼과 이혼이라는 관점도 갖게 하였다[27]. 반면에 참여자들은 이혼 후 한국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정서적으로 되돌아보음을 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혼의 삶은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경계인으로 서성대는 삶이라는 것을 연구 참여자들 또한 쓰라리게 경험하였다[10]. 참여자들은 한 부모 가정의 무력감을 경험하였다[28].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의한 현실적 어려움과 전 남편과 자녀에 대한 그리움은 이혼을 후회할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 오히려 참여자들은 고통 이면의 다양한 자유와 누림이라는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 책임지는 선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이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는 '환상적 결혼동기에 의한 한국으로의 결혼을 소망', '좌절을 느낀 한국생활의 고통'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이혼'의 과정이었으며, 힘들고 환상이 무산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그녀들 자신의 새로운 삶을 구상하며 이혼을 한 것이다.

3. 총체적 의미 진술

Colaizzi(1978) 현상학 방법의 특성은 개인적 속성 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가 도출되고, 공통적인 속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에 대한 본질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이주해온 여성의 가족해체 경험의 현상은 원 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한 결혼, 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어려운 생활로 인한 아픈 마음이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었다. 걸림돌이라 함은 남편, 시댁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즉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새로운 가족 간의 마찰로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원 가족이라는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회복될 수가 없는 불가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 한류현상에 따른 한국 남성에 대한 환상과 경제적 이유,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이 이주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본국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결혼을 결심하여 이주해온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베트남 가정의 이주여성들은 언어·문화적 차이, 경제적·사회적·법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정서 문화의 다름에서 오는 기본적인 것과 부부간에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서 오는 섭섭함이 누적이 되고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결혼 초와는 많이 달라진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

가 이들을 가정의 해체로 내몰기도 한다.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부분은 경제적 차이와는 별개로 성적인 면은 베트남이 훨씬 더 개방되어 있으며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들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한국 남편의 정서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베트남 아내의 정서가 충돌하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참여자들을 단정하지 못한 여성으로 인식되게 한 것이다. 존중해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거기에 '성'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은 문화 차이로 인한 고통, 정서적인 소통의 어려움, 사랑에 대한 갈증, 무책임한 남편, 사랑 받고 살고 싶다는 갈급함이 인터뷰 과정 중에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이혼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차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며, 결혼이주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불만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 요소로 작용하여 가족 해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이 노력하고자 하였을 때는 이미 이주여성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그곳은 바로 언어가 통하고 정서가 통하는 자국민의 남성인 것이다. 이혼을 한 것에 대해 후회도 하고 시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국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들이다. 이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좁혀지지 못하는 아픔이라 할 수 있다. 아이 아빠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지만 한국에 또 다른 남자는 무섭다는 참여자는 가정은 그림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참여자의 본질은 같은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환상 즉, 가난탈피와 한국에서의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환상이 문제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결혼 생활 중 행복한 경험도 있었지만 남편과의 갈등과 미움, 원망, 불만이 더 많아 결국 이혼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였다. 이혼 후 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추억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부부갈등과 이혼관련 연구에서 다소 덜 표면화된 부부간의 '성' 갈등을 부각시킨 것에 의의를 갖는다. 다문화 부부 갈등이 나이 차이와 문화 차이에 의한 갈등으로 당연시되는 이면에 베트남 여성의 성적인 불만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다문화 부부상담의 성관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성'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내 보이는 베트남 여성과 자연스러움을 받아 드리지 못하는 남편의 갈등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나며, 문화 차이에서 오는 '성'에 대한 불만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을 외롭게 만들고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남편들, 역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이혼한 여성들은 대부분 본국 남성과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위한 교재를 하고 있다. 이는 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활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성'에 개방적인 베트남 여성과 가부장적인 기질이 남아있는 한국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혼 초부터 짐작되어야 할 문제로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해체 문제 경험의 심층적인 분석 결과로 질적 연구의 특성을 살려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 가족 해체문제에 대한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가족 해체의 예방과 안정성 증대를 위한 이론개발 및 프로그램 활용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관련 이론과 프로그램 활용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해체 경험 본질의 구성요소로 지적되는 문화, 정서라는 시각과 부부의 '성'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즉, 부부의 성문제가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부부간의 애정표현과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책

임인 '성관계'를 간과하게 된다면 부부갈등의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개방되어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본 연구에서 밝히게 되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제 상담에서 종종 주된 호소로 선정되면서 학문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1.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충남 소재 이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6명의 결혼 경험에 대한 것이며,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결혼생활 5년 이상이고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타 지역 혹은 5년 미만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경험과 다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들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성은 타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과 결혼 경험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이혼한 이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2. 제언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남 거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충남에 거주하는 타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동일한 경험을 탐색할 것을 제언한다. 두 연구의 결과 통합은 충남지역의 이혼한 이주여성의 결혼경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혼한 이들의 경험이다. 후속 연구는 이혼의 위기에서 극복한 이들의 심리적 경험을 탐색할 것을 제언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예방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홍기혜,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 통계청,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사회통계국, 2018.
- [3]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18, 11.
- [4]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 [5] 김용운, *한국형 다문화 주주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6] 백기호, *다문화가정 해체에 따른 범죄 추이와 사법정책*,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7] 윤동화, *다문화 가정 해체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8] 이명옥, *다문화가족 해체예방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9] 송재현,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379-391, 2018.
- [10] 이해경,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47권, 제47호, pp.29-54, 2015.
- [11] 이정희,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 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2] 주미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 결정 요인분석*,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3] 윤동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해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7권, 제2호, pp.37-58, 2013.
- [14] 박재규,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제17권, 제2호, pp.75-105, 2007.
- [15] 박진근,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 원인과 친권·양육권 결정," 한국법 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pp.1117-1142, 2010.
- [16] 설동훈, 이계승,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지역사회학, 제13권, 제1호, pp.117-147, 2011.
- [17] 송효진,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따른 아동보호의 문제," 가족법연구, 제26권, 제2호, pp.1-36, 2012.

- [18] 박미정,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9] 조지용, 박태영, “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의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9권, 제2호, pp.41-62, 2011.
- [20] 신경림, “질적연구방법의이론,”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동계연수자료, pp.5-22, 2001.
- [21] Y. S. Lincoln and E. G. Guba, *Effective Evaluation(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5.
- [22]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23]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29권, 제6호, pp.1208-1220, 1999.
- [24] 박병금,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277-295, 2013.
- [25] 정기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경기도내 국제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
- [26] 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다문화 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10.
- [27] 김순남, “성별화된 이혼의 서사: 상실의 경험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제4호, pp.41-72, 2009.
- [2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사례분석*, 가정상담 5월호, 2013.

저 자 소 개

고 미 숙(Me-Suk Go)

정회원



- 2014년 2월 : 선문대학교대학원사 회복지학과(석사)
- 2017년 2월 : 선문대학교대학원 통 합의학과가족상담(박사수료)
- 2010년 4월 ~ 2019년 2월 : 태안 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 무국장

■ 현재 : 사단법인 글로벌센터 간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족